

## 옹진군, 병원선 '건강옹진호' 타고 섬 방방곡곡 찾아가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병원선(건강옹진호)의 보건교육실을 활용한 '섬 방방곡곡 누비는 보건교육'을 지난 3일 첫적면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했다고 밝혔다.

"섬 방방곡곡 누비는 보건교육"은 의료 취약 지역인 도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직접 찾아가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형 보건 교육 서비스로, 병원선 운행과 연계해 매주 화요일 정기적으로 운영된다.

이날 보건소 전문인력은 첫적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영양관리, 철주 및 금연 교육, 치매 예방, 정신건강, 구강건강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주민 눈높이에 맞춘 시청각 자료와 인쇄물을 활용해 이해도를 높였으며,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습관 형성에 초점을 맞췄다.

앞으로도 보건교육은 병원선 내 보건교육실은 물론, 지역 내 경로당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도서지역 여간에 맞게 탄력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박혜련 보건소장은 "병원선(건강옹진호)를 활용한 이번 보건교육은 단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넘어, 주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도서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건교육을 통해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강화군, 농번기 불편 없도록

### 임대 농기계 사전 정비 박차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기계운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전 점검과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화군 농기계운행은 소규모 농가의 구입 부담을 덜기 위해 영농에 필수적인 각종 농기계를 저렴한 비용으로 연중 임대하고 있고 있다.

임대를 위해 구비한 농기계는 126기종 973 대에 달하며, 매년 많은 농업인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농업 현장의 든든한 지원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영농철 임대 수요가 많은 트랙터, 관리기, 이앙기, 잔가지 파쇄기 등 주요 농기계를 대상으로 사전 점검과 정비를 실시해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엔진 및 유압계통 점검 ▲소모품 교체 ▲안전장치 작동 여부 확인 ▲기계 세척 및 보관 상태 점검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해, 임대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농기계운행 관계자는 "농번기에는 작은 고장도 큰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추운 날씨 속에서도 꼼꼼한 사전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Goheung Spaceship Terminal

# 제16회 고흥 우주항공축제

2026.5.2. 토 – 5.5.화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일원

주최/주관 고흥군 고흥군축제위원회

## 유정복 시장, 계양구 연두방문... 시·구 협력



시와 구 협력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관계 부서와 함께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유 시장은 기자실을 방문해 지역 언론인들과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 응답을 진행했으며, 이후 구청 대강당

으로 이동해 주민 450여 명이 참석한 '생생톡톡 애인(愛仁)소통' 행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유 시장은 시정 정책의 비전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질의 사항에 답하며 소통의 시간을 이어갔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유정복 시장의 이번 방문과 적극적인 협력 의지에 환영하며, "인천의 미래 비전은 곧 계양구의 발전과도 맞닿아 있다."라며 "앞으로도 인천시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현안 하나하나를 차분하고 책임 있게 풀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심하린 기자

## 인천시, 스마트도시계획(2025~2029) 국토교통부 최종승인

### 원·신도심 균형발전 및 글로벌 스마트도시 조성 본격 추진

#### 군·구 특성 반영한 41개 이행과제로 시민 체감형 서비스 확대



됐다.

계획의 주요 목표는 ▲균형발전 스마트도시 ▲모두가 함께하는 메가시티 ▲글로벌 스마트도시 ▲데이터 기반 혁신도시 등 4개 분야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두가 누리는 스마트도시' 등 8대 추진전략과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 보급확산 서비스' 등 41개 이행과제를 담았다. 이를 통해 군·구별 특성에 맞는 인천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과 공무원 설문조사(3회), 부서 인터뷰(3회), 전문가 자문 회의(3회), 공무원 워크숍(1회), 시민 공청회(1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립

을 수렴하고 이를 계획에 적극 반영했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인천형 스마트도시는 기술 중심의 도시가 아니라, 사람 중심, 시민 체감 중심의 도시"라며, "ICT·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수산공익직불금을 수령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이 해양 환경 보호와 수산자원·생태계 유지 등 공익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인천시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일부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성실히 제도를 이행하는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부정수급 사례 20건을 적발했으며, 환수대상 금액은 총 1,504만 8천 원이다.

심하린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실 안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연수'

### 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지원 연수 개최... "촘촘한 학습 안전망 가동"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월 3일부터 5일까지 경인교육대학교에서 초등교사 300명을 대상으로 '교실 안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학기 초 기초학력 결손을 조기에 발견하고, 수준별 맞춤 지도가 가능하도록 교원의 수업 실천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연수 과정에서는 교육청이 자체 개

발한 학습 도구 및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국어(한글 해독 및 기초 문해력), 기초수학(수감각·연산), 모두의 분수(학습 사이트) 활용 방안 등을 다룬다.

특히 학생의 수준에 따라 활용 가능한 '무학년형 교재·교구'를 수업에 적용해 보는 실습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연수에 참여한 교원들은 학생의 수준별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지도 전략과 교수·학습 자료 활용 방안을 공유하며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학기 초부터 기초학력 지원 체계를 촘촘히 가동하겠다"며 "모든 학생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하린 기자

## 남동구, 설 명절 대비 시장 계량기 검사

남동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4~13일 까지 시장에서 사용하는 계량기의 수시검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설 명절 연휴 전 남동구 관내 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과 상인들의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다.

구는 계량기 혜손 여부, 사용 오차 및 영정 조정 상태, 경정 및 정기 검사 합격 여부 등을 중점 검사한다.

특히, 명절 연휴 중 불법 계량기 사용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할 방침이다.

심하린 기자

## 서구, 행정체제 개편 검단지역 주민소통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3일 다가오는 2026년 7월 '검단구' 시대를 여는 행정체제 개편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검단지역 주민소통단 제3차 정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단지역 주민대표로 구성된 소통단 위원들과 검단구 출범에 따른 ▲임시정사 설치 현황 ▲검단구 출범 사전 조치사항 ▲분야별 주민소통단 등 검단구 출범 진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주민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구는 "유례없는 행정체제 개편이 행정공백 없이 무사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두가 공감하는 검단구를 실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지구문명에서  
우주문명으로